



해설 제주도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 배경은…

민선 8기 성공 마무리 위한 조직 안정 중점

도민 안전·경제 활성화 전략적 인력 배치에 주력
청다오 항로·BRT 등 현안 부서 국장들 새 얼굴로
오 지사 “새로운 제주 미래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

제주도는 15일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마지막 정기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2025년 하반기 인사에서 공공정책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던 양제윤 국장이 6개월여 만에 안전건강실장으로 전진 배치되는 등 모두 합쳐 878명 규모로 이뤄졌다.

제주도는 민선 8기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실시되는 인사인 만큼 조직 전반의 안정을 기본 기조로 삼았다고 했다. 이에 더해 포괄적 권한 이양, 에너지·디지털 대전환, 국제 물류 혁신 등 핵심 부처에는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실행력이 검증된 인력을 중용했다.

인사 내용을 보면 안전건강실장, 경제활력국장, 기후환경국장, 교통항공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등이 승진 또는 전보를 통해 새 얼굴로 바뀌었다. 분야별로는 도민 안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배치에 주력했고 그간 행정직렬이 맡았던 농축산식품국장과 상하수도본부장은 과학기술직렬을 임명해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력을 강화했다고 부연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작된 제주형 건강주치의제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상급종합병원 지정

을 위한 전략, 제주~청다오 화물선 정기 항로 논란 확산 대응 방안,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 시행 이후 도민 불편 해소책 마련 등 현안에 따른 과제가 적지 않다. 오영훈 도정으로선 6·3 지방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 당장의 성과를 떠나 행정에 대한 도민 신뢰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전국체전기획단장은 장기교육에 들어가면서 6개월여 만에 교체됐다. 오는 9월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 10월 전국체전 준비를 고려해 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전국체전기획단장, 전국체전기획과장 모두 새 인물로 승진 발령됐다. 체육계 일각에서는 최근 들어 도 체육진흥과장이 1년을 채우지 못하는 등 인사이동이 잦다며 체육계 확대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또한 ‘성과 우수 공무원 발탁추천제’를 지속 운영해 4~5급 승진 예정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실제 업무 성과가 탁월한 직원을 승진시켰다. 적극행정 우수자, 격무·기피 업무 수행자 등에 대해선 희망 보직 신청 시 우선 반영해 선호 부서에서 근무할 기회를 늘렸다.

새해 시무식에서 2026년을 ‘미래산업과 먹거리 확정의 해’로 제시했던 오영훈 지사는 이번 인사에 대해 “민선 8기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성과를 낸 공직자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모든 직원에게는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해 도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오 지사, 내란 동조 혐의 2차특검 수사 대상 오르나

민주, 2차 종합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

2차 종합특검법의 국회 처리가 임박하면서 12·3 비상계엄 당시 지자체 동조 혐의가 다시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내란 특검으로부터 각하 처분을 받고 한시를 내려놓았던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다시 수사 대상에 오를지 주목된다.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 대상 중 후속 수사가 요구되는 부분과 3대 특검에서 추가로 드러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및 외환·군사반란 혐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건진법사·명태군 씨 관련 선거 개



15일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 의혹, 관저 이전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부당 개입 의혹 등 14개 혐의 또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검은 준비 기간 최대 20일을 보낸 뒤 90일 동안 수사하되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대통령

승인을 받을 경우 1회 더 30일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은 2차 특검법 본회의 처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을 수사 대상에 넣은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무

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특검수사기간이 두차례 연장되면 최대 170일 활동할 수 있는데, 6월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2차 특검법이 통과되면 12·3 비상계엄 당시 제주도청사 폐쇄 논란과 관련해 내란 동조 혐의로 고발당한 오 지사에 대한 수사도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오 지사에게 제기된 내란 부화 수행 혐의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오 지사를 포함해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지자체장은 없었다.

내란특검은 당시 일부 지자체장들이 청사 폐쇄 등 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앞서 고부진 변호사와 국민의힘 해체행동, 서울의소리는 오영훈 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내란 부화 수행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알림

한라일보에서 당신의 꿈과 희망을 키워보세요

모집분야 : 신입·경력기자 0명

자격조건 : 초대졸 이상(재학생 지원 불가, 대학교·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마지막 학기 있는 자는 지원 가능)
※ 홈페이지 우측 사원모집 배너(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첨부파일)

제출서류 : 한라일보 소정양식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자격·면허증 사본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심층면접

서류접수 : halla2530@hallailbo.co.kr(이메일 접수만 받습니다)

접수마감 : 2026년 1월 23일(금)

문의 : 한라일보 총무부 ☎ 064) 750-2531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합격은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김한규 의원, 제주투자진흥지구 해지 법안 발의

지구 지정 ‘해지’ 근거 마련

불필요한 행정 부담 해소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서)이 투자진흥지구 지정 목적 이 달성된 경우 도지사가 지구 지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과 ‘해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 목적이 달성된 이후 이를 종료하는 ‘해지’ 규정이 없어 행정적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투자계획이 모두 이행된 기업이라도 지정을 ‘해제’할 경우 조세 감면 혜택 등을 반환해야 하는 문

제가 있어, 불필요하게 지구 지정이 유지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가 전부 이행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도지사가 투자자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지정 목적이 달성된 기업의 지속적인 보고·행정 의무 등 기존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된 기업들이 계획한 투자를 마쳤음에도 법적 미비로 행정적 부담을 지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 기업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어르신 행복택시

공항 심야택시 개편

제주도는 ‘어르신 행복택시’와 ‘제주국제공항 심야 운행택시’ 등 제주도가 운영 중인 교통복지 정책의 지원 기준을 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어르신 행복택시의 경우 생일 달에 따른 월별 차등 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읍면지역 65세, 동지역 70세 생일을 맞이한 신규 대상자에게 해당 연도 보조금 16만 8000원을 전액 지원했지만, 올해부

터 1월생은 16만8000원, 12월생은 1만4000원을 받는 등 월 1만4000원 단위로 계산해 지급한다. 지난해 보조금을 받았던 대상자는 종전과 같이 전액 지원을 받는다.

제주국제공항 심야 운행택시 보장금 지원 시간대도 개편됐다. 그동안 금·일요일의 경우 오후 7시부터 지원했으나, 요일에 관계없이 지원 시간대를 오후 9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로 단일화한다. 또 대중교통 운행이 줄어드는 심야 시간대에 지원 역할을 집중해 공항 이용객의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오소빈기자

♣♣♣2022년~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광고 제 2026-1호]

제58차 조합원 정기총회 개최 공고

정관 제30조 및 제32조에 의거하여 본 조합 제58차 조합원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총회일시**
2026년 02월 06일(금) 오전 11시
- 장 소**
제주성안교회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2025회계년도 종합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제2호의안 : 2025회계년도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 제3호의안 : 2026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제4호의안 : 상임임원 보수 결정의 건
 - 제5호의안 : 상임이사 선임의 건
 - 제6호의안 : 상임감사 선임의 건
 - 제7호의안 : 전문임원 선임의 건
 - 제8호의안 : 상임이사장 및 임원 선출의 건

알 림

※ 총회 참석은 **조합원(본인)만** 인정 가능하며, 조합원께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 30분전까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이 협소하여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1월 16일

한라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강정신

외국인 근로자 및 동반가족 통합 상담지원 프로그램 운영

- 일 시 :** 2026. 1. 22(목) 10:00~17:00
- 장 소 :** 제주관광대학교 체육관
- 상담 내용 :** 취업, 근로, 법률, 의료, 출입국(비자), 생활안전, 생활상담 및 지원 등
- 주 최 :** 제주관광대학교 RISE사업단
- 주 관 :** 국제가정문화원
- 후 원 :** 제주관광대학교
- 문 의 :** 국제가정문화원(064-742-5641)

[실제시공이미지]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공간, 당신의 이야기로 채우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시공!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A/S 보장

동서인테리어

건축 / 실내 토탈 인테리어 / 욕실 / 거실 / 상가 등
시공문의 064) 758-0015

일상이 새로워지는 오늘을 담은 가구

우수한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 A/S보장
신구간 맞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동서가구

싱크대 제작/불량이장/침대/소파/가구일체
구입문의 064)758-0065